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2일 (음력 2월 16일) 금요일

농협 하나로마트 '억대 뒷돈' 납품 비리 의혹

모 조합장 부인 8년간 마트 납품업자에 1억원 수수 의혹

경찰 "납품 비리 사실 진위 여부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물품 납품을 대가로 조합장 측에 억대의 뒷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모 농협 조합장 측에서 마트 물품 납품을 대가로 지난 8년간 납품 업자에게 매달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정황을 제보한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납품업자 B씨가 해당 농협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매달 조합장 부인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말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비리의 검은 뒷거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A씨가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녹취록에는 업자 B씨가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농협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과 전달 대상, 전달 시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나주지역 해당 농협 외에도 복수의 전남지역 하나로 마트에도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정황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납품업자들에 따르면 납품업자 B씨는 매달 초 나주의 모 농협 조합장 부인에게 200~2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했고, 지난 8년간 건넨 돈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A씨와 관련자 등을 상대로 항간에 떠도는 나주 모 농협 마트 납품 비리가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은행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자동차공장 법인설립 탄력

자본금 투자 · 대출 지원방안 검토

광주·전남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이 '광주형 일자리'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법인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설립 예정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일부 투자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는 합작법인의 신용도를 높여 향후 투자자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광주은행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합작법인의 투자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100억원 규모다. 자기자본은 광주시 21%(590억원), 현대차 19%(530억원), 그외 60%(1680억원)로 지분율을 구성한다.

광주시는 최근 투자유치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현대차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시 업무협조를 위해 서울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출자대상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건설업체, 지역 산업계, 공공기관,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업체와 기관에 투자유치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개별 접촉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작법인의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법인설립과 하반기 공장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 모집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명칭공모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21회 함평나비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21일 오후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에서 이윤행 함평군수와 어린이들이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행사'를 하고 있다. 함평나비축제는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펼쳐진다.

전남 수산물 생산4조원 목표

2022년까지 소득 5천억 증대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이 전남 수산물 생산 4조원 시대를 목표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의 연구기능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은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크게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3개 연구소 및 5개 품종별 시험장에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해 연구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 톳, 능성어, 참조기, 해삼, 꼬막, 전복 등 핵심 전략품종을 선택해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며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를 위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T/F팀을 구성, 전남 수산물생산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기계획은 2019~2022년, 장기계획은 2019~2024년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책연수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회동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몇 주 동안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뽑힌 지 3주 가까이 되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나'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회동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몇 주 동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사회주의 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나 원내대표가) 법률가이신데 헌법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